

‘익산 관광 활성화 산업체 중심으로’

관광경영학회 정기학술대회 성료... 주제발표와 함께
익산 관광발전 관련 논문 발표·아이디어 공모 진행

제47회 관광경영학회 정기학술대회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익산 무형문화재통합전수교육관에서 1박 2일 동안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익산시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와 '익산시 관광 아이디어 공모전'이 함께 진행됐으며, 전국의 관광분야 전문가와 학회 관계자, 대학생, 일반단체,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정기학술 추진위원장 김영현 교수(호남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사)관광경영학회 회장 류인평 교수 환영사, 익산시 장현을 시장과 전라북도관광협회 조오익 회장의 축사로 정기학술대회의 막이 올랐다. 이어 1부에서는 박종찬 교수(광주대)가 '대의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지자체 관광 발전 전략'을 주제로 기초발표를, 소재인 교수(원광보건대)는 '지역 산업체 중심의 익산 관광 활성화 방안', 김영미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 변화와 지자체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2부에서는 익산시 관광발전과 관련한 12편의 논문 발표 및 익산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이 진행됐다. 공모전에는 전국의 23개 대학에서 52개팀, 일반부 3개팀이 참가해 익산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논의됐다. (재)익산문화관광재단 장성국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비대면·비접촉이 강조되는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 새로운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선정된 아이디어들은 익산시 관광사업에 반영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사)관광경영학회 류인평 학회장(전주대 교수)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산업 생태계의 변화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학회를 통해 최근 변화하는 대외 환경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 산업에 대응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장현을 익산시장은 이날 축사에서 "익산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의 관광수용태세 개선 및 콘텐츠 개발로 익산시를 전라북도의 대표 관광지로 육성·발전시키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장은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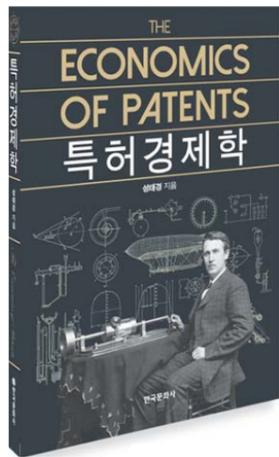


제47회 관광경영학회 정기학술대회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익산 무형문화재통합전수교육관에서 1박 2일 동안 진행된 가운데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제학에서 소홀히 다루지는 '특허'의 모든 것

전주대 성태경 교수, '특허경제학' 발간

학에서와 달리 경제학에서 소홀히 다루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 경제이론으로서 '특허경제학'을 집필했다.



미시·거시경제적
국제적 측면으로 구분
휴면특허 이론 전개

그는 특허경제학을 미시경제적 측면과 거시경제적 측면, 국제적·정책적 측면으로 구분해 다루고 있으며 특허 전체 특허 중 70%가 활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휴면특허(sleeping patents)의 경제이론을 독창적으로 전개했다.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5년에 걸쳐서 집필된 이번 저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제학, 경영학, 법학, 공학 등을 전공하는 학생과 특허경영 및 전략에 종사하는 기업경영자, 특허 정책을 수립하는 정책입안자 그리고 특허에 관심 있는 일반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성태경 교수는 기술경제, 기술경영, 혁신시스템, 산업조직 분야의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이번 '특허경제학'은 '표준의 경제학(2012)'과 '기업가정신의 경제학(2017)'에 이은 관련 분야 국내 최초의 저서다. /장은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천 환경개선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전화 063-288-9700



지역 특화 문화관광 상품 개발 공모

전북문화관광재단, 내달 10일까지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 이하 재단)은 도내 문화·예술 자원을 기반으로 한 지역특화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에 나섰다.

'지역 문화예술 기반 문화관광 상품개발 사업'은 문화예술관광 상품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사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자생력 확보 기반 마련과 지속가능한 관광 실현을 위해 추진된다.

공모 기간은 6월 23일부터 7월 10일까지며, 대상은 도내에서 활동 중인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문화예술관광 관련 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마을기

업, 소상공인 등으로 총 3개 내의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사항은 제한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의 운영비 일체 또는 일부, 1:1 컨설팅 및 상품화 교육, 홍보마케팅 등이며, 지원금은 전문가 심사를 통해 프로그램 규모와 평가에 따라 팀별 500~2500만원 내외로 차등 지급된다.

본 사업에 참여할 단체와 소상공인 등은 재단 홈페이지(www.jct.or.kr)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아 이메일(jctourism@daum.net)로 참가신청서 1부, 지원사업계획서 1부, 발표자료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와 문화관광팀(063-230-7462~3)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 11월까지 '전통 목공예 교실' 운영

가방틀 옷칠공예 이음방서 교육 진행

남원시는 모기의 고장인 남원의 명성과 이미지 제고를 위한 옷칠 같이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 희망자 45명을 대상으로 6월 22일부터 11월까지 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옷칠 초급반 수업을 시작으로 2개 분야(옷칠, 같이분야), 6개반(옷칠 초급·중급·고급, 같이 초급·중급·전통같이)으로 구성해 반별로 매주 1~2회 진행되며, 도무형문화재 옷칠장 박강용 선생(옷칠 고급반), 대한예술명인 이근우 선생(같이 중급반) 등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포진되어 있어 전문성 있는 수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로 포진되어 있어 전문성 있는 수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9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마을공방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남원옷칠공예관 옆에 조성한 '가방틀 옷칠공예 이음방'에서 전문 교육장비를 이용해 교육을 진행한다.

김원식 일자리경제과장은 "새롭게 조성한 가방틀 옷칠공예 이음방이 전통공예의 맥을 잇고 저변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옷칠같이 교육으로 부족한 인력기반을 강화해 남원의 전통목공예산업이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